



## 칼빈의 교부자료 사용 연구

한 성진(총신대)

### 1 칼빈의 교부사용 연구의 위치와 난제

#### 1.1 칼빈 연구에서 교부사용연구의 위치

세계 칼빈 학회의 창시자이며 저명한 칼빈 학자인 빌헬름 노이저(Wilhelm Neuser) 교수는 칼빈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글에서, 최근의 세계 칼빈 학회(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에서 자주 다루어졌던 세 가지 주제를 분류한다.<sup>1)</sup> 이 주제들은 첫째 ‘칼빈과 교부들’(Calvin and the Church Fathers), 둘째, ‘칼빈과 스콜라 신학자들’ 그리고 셋째, ‘칼빈과 그의 동시대인들’에 대한 연구이다. 이 소논문의 주제는 넓은 의미에서 첫 번째의 분류인 ‘칼빈과 교부들’에 관한 연구에 포함된다.

한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앤소니 라인(A.N.S Lane)은 칼빈과 선임자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sup>2)</sup> 이 연구로는 첫째, 칼빈의 신학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초기 신학자들의 신학과 비교하는 ‘비교 연구’(대개 주요 비교 대상은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이다). 둘째, 칼빈의 초기 신학자의 사용을 연구하는 ‘사용 연구’ 그리고 셋째, 초기 신학자들이 칼빈에게 미친 영향력을 연구하는 ‘영향력 연구’가 있다. 사용 연구에 있어 강조점은 칼빈과 비교 되는 신학자 사이의 차이점과 동일성 연구에 있지 않다. 또한 그 선임자가 칼빈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추정 연구에 있지 않다. 오히려 칼빈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점과 그들이 칼빈의 실제 저작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1. 2 칼빈과 선임자들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난제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흥미로운 작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교부들에 대한 칼빈의 지식과 사용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전망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판 오르트(J. van Oort)의 지적처럼, 수많은 연구가 이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이들은 진정한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결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포괄적이며 결정적인 연구 또한 전혀 나오지 않는다.<sup>3)</sup> 무엇이 이런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일까?

1) W. H. Neuser, 'Future tasks of the International Calvin Research', *Hervormde Theologiese Studies* 54 (1998) 154.

2) A.N.S Lane, *John Calvin: Student of the Church Fathers* (Edinburgh: T&T Clark, 1999) 15.



우선적으로, 각 연구 사이에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는가 질문할 수 있다. 세 가지 연구 방법 모두 각각의 연구 방법, 각각의 연구 목표와 연구 그룹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 분야의 장점과 단점을 매개시킬 효율적인 네트워크와 방법론은 부재한 상태이다. 두 번째로, 칼빈과 교부와의 관계연구에 있어 어거스틴이 지니는 일반성과 독특성을 기존 연구가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세째, 한국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조직신학과 역사신학 사이의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공동 연구가 부족한 것은 상당한 문제이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텍스트와 콘텍스트간의 상호교호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별개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칼빈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수적일 것이다.

## 2 연구 난제의 접근

### 2. 1 사용 연구는 다른 연구의 기초 연구

래인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론 중, 두 번째인 ‘사용 연구’가 다른 연구로 나가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칼빈의 교부들에 대한 사용 연구는 그의 신학을 형성한 교부들의 영향 연구보다 덜 웅장할 뿐더러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칼빈의 실제적인 사용 연구가 이루어진 **연후에야**, 그리고 이 연구에 주의가 집중되어야만, 그 결과로 영향력 연구에 있어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sup>4)</sup>

두 번째 연구가 다른 연구들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래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칼빈은 자신의 저작에 이레니우스를 84회 인용한다.<sup>5)</sup>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레니우스의 *Adversus Haereses*를 활용하며, 성찬론에 있어 자기 사상과의 일치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칼빈에게서 이레니우스의 핵심사상인 총괄갱신(*recapitulatio*)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sup>6)</sup> 따라서 두 사람의 신학에 대해 단순히 비교 연구만을 시도할 경우 초기 연구자의 실제 신학과 칼빈 사이의 간격은 메울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sup>7)</sup> 그러므로 사용 연구는 비교 연구의 한계점

3) J. van Oort, 'John Calvin and the Church Fathers' in Backus (ed.), *Reception of the Church Fathers in the west* (Leiden, etc.: E. J. Brill, 1997) 661.

4) A. N. S. Lane, 'Calvin's use of the Fathers and the Medievals', *Calvin Theological Journal* 16 (1981) 149-205.

5) R. J. Mooi, *Het kerk-en dogmahistorisch element in de werken van Johannes Calvijn* (Wageningen, Netherlands: H Veenman & Zonen, 1965) 398.

6) *Ibid.*, 199.

7) 예를 들어, E. P. Meijering의 *Calvin wider die Neugierde. Ein Beitrag zum Vergleich zwischen reformatorischem und patristischem Denken* (Nieuwkoop: de Graaf, 1980)은 칼빈의 사상을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어거스틴 등과 비교한 좋은 저서이다. 그러나 제출된 비교가 칼빈 사상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증거로 그



을 분명히 지정해 줌으로써, 비교 연구가 더욱 중요한 내용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용 연구를 비교 연구나 영향력 연구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기초 연구로 인식할 때, 오히려 타 연구의 성과를 자기 연구의 모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연구자들 사이에 보다 열려진 마음과 연구 네트워크의 확대 그리고 연구 성과의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 2. 2 교부 사용에서 어거스틴의 위치

대다수의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의 저작이나 영향력 면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역할과 영향력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이 인식이 실제 연구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노이저 또한 이 점에 대해 지적한다. “칼빈과 클레보의 버나드, 칼빈과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그리고 칼빈과 키프리안 등의 주제가 이제까지 세계 칼빈 학회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나는 칼빈이 이 교부들을 독립적인 신학자로 인식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들은 단지 칼빈의 교리들이 성경을 의지하게끔 보조하는 역할로 쓰인 것이 아닙니까? 칼빈의 시대에 교부들은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고, 칼빈은 교부들을 그의 대적들의 손에 던져두기를 원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당시는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위해 교부들의 견해를 살펴보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초대 교회 그리고 중세 교회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상은 종교개혁과 가장 가깝습니다.”<sup>8)</sup>

칼빈과 교부와의 관계 연구에 있어 칼빈의 사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과의 관계 연구가 그 동안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개별 연구가들이 어거스틴을 포함한 교부 전체와 교부들 속에서 어거스틴의 위치라는 민감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에서 비롯된다. 즉 어거스틴을 포함한 교부들의 일반적 사용과 교부들 중 어거스틴에 대한 특수 사용의 두 측면이 칼빈의 교부자료 사용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따라서 칼빈과 교부들과의 어떠한 연구라도, 이 민감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달리 말하면 칼빈과 교부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종교개혁연구자들은 교부학이나 어거스틴 연구자들의 성과를 겸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호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 어려운 난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 3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고려

칼빈과 전임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 있어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 칼빈과 어거스틴을 비교할 경우, 우리는 어거스틴의 시대, 칼빈의 시대 그리고 연구자의 시대라는 세 가지의 시간 프레임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진지한 연구자라면 이 세 가지 시간 프레임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고려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정론’, ‘삼위일체’, ‘공로’, ‘믿음’, ‘기독론’, ‘은총론’ 등의 정의는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인 의미와 활용을 지닌다. 그러나 이 교리들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활용은 오늘날의 엄격한 정의를 뛰어넘었다. 칼빈은 이러한 교리들을 한 가지 주제를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했다.<sup>9)</sup> 오늘날의 학자들이 한 주제를 위해서 이러한 별도의 주제를 조합하여 사용하기는 무

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8) W. H. Neuser, 'Future tasks of the International Calvin Research', *Hervormde Theologiese Studies* 54 (1998) 155.



척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칼빈의 저작에서 이 주제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어우러져 있다.<sup>10)</sup> 이 예가 보여주는 바는, 역사 신학의 성과는 조직 신학의 성과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보완적이라는 점이다. 칼빈을 해석하는데 있어 16세기 맥락에서 칼빈의 실제 사용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칼빈에 대한 조직신학적 이해 또한 더욱 풍요해지지 않을까?

이 점에서 칼빈 연구에 있어 텍스트에 기반한 연구를 촉구한 리처드 뮐러(Richard Muller)의 최근 지적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최근에(1995년) 영어 사용 대중을 위해서 비평적 신간으로 영역 출판된 바르트의 저작 『존 칼빈의 신학』은 교의적 또는 사상적 에세이의 주요한 보기로서 언급될 가치가 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증거들을 '위기' 신학의 관점에서 읽어볼 때, 그리고 칼빈 신학에 있어 '지식의 주요 원리로서, 또는 대립되거나 대립 이상의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최상에 서게 된다(165p)'는 관점에서 읽어 볼 때, 16세기의 콘텍스트는 사라져 버리며, 그 결과로 이 책은 칼빈의 신학에 관한 책이 아니라, 젊은 바르트 자신의 신학적 투쟁을 다룬 책임이 분명해 진다. **이 책은 칼빈을 조명하지 않는다.** ...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해석하기 위한 또 한편의 에세이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논증의 실제 분석을 위해 칼빈의 텍스트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sup>11)</sup> 현대 교의학에 있어서 바르트의 영향이 너무나 심대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교회사는 원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조차 바뀌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을 해석하려면 칼빈 자신의 텍스트에 충실해야 한다는 반성이 최근 칼빈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어남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sup>12)</sup>

### 3. 교부 사용의 목적과 적용

#### 3. 1 성경과 교부자료 사이의 권위에 대한 혼동

칼빈은 왜 교부자료들을 사용한 것일까? *Sola Scriptura*라는 개혁주의 사상이 풍미한 당시 왜 보조적인 교부자료가 필요했던 것일까? 물론 종교개혁 자체가 성경과 초기 5세기까지의 교부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저작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질문의 내면에는 성경, 전통, 권위, 자료라는 문제들이 직·간접적으로 얽혀져 있다.

맥그라스는 성경과 전통 사이의 16세기적 이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sup>13)</sup>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9) 예를 들어, 기독교 강요 2장 17절(CO 2, 386)을 보라. 존 칼빈, 김종흡 외역, 『기독교 강요』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727. “예정과 은총의 가장 밝은 빛은 인간으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선행하는 행위나 믿음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인간성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다. 한번 내게 대답해 보라. 어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자격을 얻었으며(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과의 위격 통일성을 얻을 자격을 얻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되신 분을 은총의 토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 은총은 머리로부터 모든 지체에 각각 그 분량에 따라 확산되어 간다. 이 사람이 은총을 받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은 은총에 의해서 믿음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

10) 줄고, *Augustine and Calvin: the use of Augustine in Calvin's writings* (Stellenbosch: Stellenbosch University Th.D thesis, 2003) 135.

11) R. A. Muller, 'Directions in Current Calvin Research', *Religious Studies Review* 27 (2001) 131-139.

12) 칼빈의 신학을 해석하는 렌즈로서 바르트의 칼빈 해석을 기꺼이 수용한 교회사가들은 칼빈 자신의 콘텍스트에 칼빈 자신의 텍스트를 위치시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구원론, 기독교론 및 교회론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 연구는 다시금 '원천으로'(ad fontes) 돌아가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

13) A.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Oxford: Blackwell, 1993) 144.



전통 0: 급진 종교개혁(The radical Reformation)

전통 1: 행정적(또는 제도적) 종교개혁(The magisterial Reformation)

전통 2: 트렌트 종교회의(The Council of Trent)

맥그라스는 *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에 적용한 유일한 세력은 ‘재세레파’ 또는 급진 종교개혁 세력이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나 카스파 슈베크펠트(Caspar Schwenkfeld) 등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면 모든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성경이외의 어떠한 교부적 전통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루터나 칼빈 등의 제도적 종교개혁자들은 *sola Scriptura*라는 기치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전통을 수용했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 수용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경해석이라는 급진종교개혁이 불리일으키는 신학적 혼란을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교부들의 저작, 특히 어거스틴의 저작을 중시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교부들을 성경적 신학의 해석자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개혁자들은 교부들이 오직 성경에 기반한 신학을 형성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했으며, 바로 이 점이 정확하게 16세기에 자신들 또한 하려고 하는 작업이었다”<sup>14)</sup>는 것이다.

칼빈이 교부자료의 실제 사용을 살펴 볼 때, 사용 목적이 대개 변증적(polemic)인 성격을 지닌 것은 틀림없다.<sup>15)</sup> 그러나 그 대상이 재세레파와 같은 전통 0에 속하는 급진 종교개혁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1559년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866개의 교부인용이 나타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4권에서 나타나는데 그 성격은 맹렬하게 반-로마적이다. 교황제의 성립에서 129개, 주의 만찬에 55개 그리고 성례에 55개 나타난다. 그러나 반-재세레파 논증에서 교부 자료의 사용은 거의 찾아 볼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세레파 스스로 교부들에게 조금의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6)</sup> 따라서 칼빈이 제세레파의 개인적 성경해석을 두려워하여 교부적 전통을 승인했다는 맥그라스의 주장은 래인의 지적처럼 사용연구를 무시하기로 결정한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단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혼동이 생기는 것일까? 맥그라스가 실제적인 칼빈의 교부자료 사용을 연구하지 않고, 2차적 정황만을 고려하여 추론했다는 것은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구자들이 성경과 교부 또는 전통을 단지 권위의 많고, 적음이라는 중세적 인식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래인 또한 이러한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래인은 칼빈이 네 가지 종류의 저작을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태도와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첫째, 성경은 규범적이며, 다른 저작들이 시험되는 시금석이다. 둘째, 교부들은 그 보다 적은 권위를 지닌다. 그들은 ‘보다 오래되고 보다 순수한 교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다음이다. 칼빈이 그들을 권위로 여긴 것은, 아마도 법학공부라는 그의 배경을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틀림없이 중세 신학의 확립된 패턴을 따른 것이다.”<sup>17)</sup> 과연 16세기의 칼빈이 성경과 교부와의 관계를 오늘날의 일부학자나 중

14) *Ibid.*, 145.

15) A.N.S Lane, *John Calvin: Student of the Church Fathers* (Edinburgh: T&T Clark, 1999) 28-29.

16) *Ibid.*, 29.

17) *Ibid.*, 29. 래인은 칼빈의 권위 인식이 틀림없이 중세 신학의 패턴을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각주 102에서 은근슬쩍 자신이 Bougerol의 ‘The Church Fathers and Auctoritates in Scholastic Theology to Bonaventure’를 읽었으며, 따라서 칼빈의 방법이 중세의 *auctoritas* 방법과 동일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발뺌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읽어야 했던 것은 *The Reception of the Church Fathers*에 수록된 르네상스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성과를 다



세 스콜라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권위의 주종관계나 우선순위, 또는 권위의 많고 적음으로 인식했을까?

### 3. 2 르네상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상식적으로 르네상스는 *ad fontes*라는 기치하에 그리이스, 로마 시대의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운동의 일환으로 교부를 재발견 종교개혁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된다.<sup>18)</sup> 그러나 최근의 르네상스 연구자들은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에 준 것이 그 이상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스텡거에 의하면,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모방 독법’ (imitative reading)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했다.

이 모방 독법은 단순히 존경받는 고대 작가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목적에서만 아니라, 인문주의자들이 더욱 근본적이라고 간주한 작가의 정신(ethos of author)을 흡수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인문주의자들의 독법, 특히 ‘비평적 독법’은 작가들을 권위 (*auctoritates*)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천(또는 자료: *fontes*)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즉 해석과 의미가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비평적으로 평가된 경험이나 해석의 개인적인 자료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문주의자들은 점점 저자의 텍스트에서의 의도를 이해하는 탐구과정에서 점점 개인적, 정치적, 지적 및 문화적 콘텍스트에 민감해져 갔던 것이다.<sup>19)</sup>

우리가 알다시피, 세속 학문의 재탄생과 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추구는 르네상스에 의해 추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대 철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16세기에 부활되었다. 르네상스 사상이 신학적인 영역으로 침투하면서 종교개혁은 그 자체로 직면하고 있던 권위, 지식의 원천 및 인식의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라는 작업과 극심하게 맞부딪히고 있었다.<sup>20)</sup> 그러므로 칼빈의 교부로의 접근은 단순한 신학적인 연습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전반적인 인식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표류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던 것이다.

성경과 전통을 둘러싼 칼빈의 16세기적 르네상스적 인식에는 애초부터 권위의 우위나 고저라는 중세적 또는 스콜라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았다. 레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권위에 관한 한 칼빈의 인식과 방법론에는 신학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중세적 인식과의 극단적인 단절과 불연속성만이 존재한다. 칼빈은 교부를 사용하면서 맥그라스의 주장처럼 *sola Scriptura*를 훼손한다든지, 스콜라적 인식처럼 성경보다는 권위가 약하지만 권위가 있다는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용의 근거에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며, 그 이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단지 자료 사용의 문제라는 르네상스적인 인식을 칼빈이 가진데 있다. 칼빈은 이런 인식하에 그의 인문주의적 첫 작품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해』에서 그의 저작인 1559년의 『기독교 강요』에 이르기까지 *sensus literalis, simplicitas, brevitatis, perspicuitas, mens scriptoris, circumstantia, intentio*라는 르네상스의 방법론을<sup>21)</sup> 일관되게 사용할

론 Charles Stinger의 'Italian Renaissance learning and the Church Fathers'였다.

18) 맥그라스 등은 여기에 덧붙여 인문주의자들이 교부를 인용한 것은 그들의 스타일상의 고전성과 우아함을 모방하기 위해서이며,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의도와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용했다는 차이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고전 사용에 대한 빈약한 이해는 맥그라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의 일반적인 이해를 반영했을 뿐이다.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가 시작되었다.

19) C. Stinger, 'Italian Renaissance learning and the Church Fathers' in Backus (ed.), *Reception of the Church Fathers in the west* (Leiden, etc.: E. J. Brill, 1997) 474-475.

20) J. B. Krohn, 'John Calvin: The Theologian', *Ned Geref Teologiese Tydskrif* 44 (2003).

21) J. M. J. Lange van Ravenswaay, *Augustinus totus noster: Das Augustinverständnis bei Johannes Calvin*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과 교부전통은 대립 개념이 아니며, 권위의 높고 낮음도 아니다. 따라서 칼빈의 교부 사용이 교부들의 직접적인 권위를 뜻하지 않는다. 칼빈에게 권위란 성경에서 유래된 진리(CO 2, 862)였다. 그의 신학적 저작의 가장 초창기 작품인 “프랑소와 1세에게 보내는 서문”에서 부터 칼빈은 고전의 역할과 교부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견해를 의도적으로 정식화했다. 칼빈은 그가 조금이라도 교부들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면, 그것은 그 교부들이 성경에 충실한데서 나온 결과(CO 1, 18)임을 분명히 했다. 달리 말하면 칼빈은 교부들의 권위를 *Sola Scriptura*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인으로 사용한 것이다. 기독교 고전의 권위를 주장할 때, 그 주장은 종교개혁의 근본이 고전 교회와 일치한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일치하는데 기반한 것이다.<sup>22)</sup> 칼빈에게 교부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며, 그 자료의 인정 여부는 그 자료가 성경에 충실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16세기 칼빈의 교부사용은 성경의 권위를 극명하게 높인 또 하나의 증거이다.

### 3. 3 교부 사용의 목적과 기능

교부자료에 대한 칼빈의 풍부함과 의도성은 칼빈의 동시대에 살았던 그 어떤 개혁자들의 교부자료 사용에서도 쉽사리 발견할 수 없다.<sup>23)</sup> 초기 교부들에 대한 칼빈의 두드러진 사용의 근인은 무엇이였을까? 그 대답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에게 있어 교부들은 보다 순수한 시대, 즉 성경이 믿음과 실천의 척도로 사용된 시대의 대표자들이었으며, 칼빈은 동료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모범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CO 1. 27).

칼빈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교부를 인용했다. 우선, 칼빈이 가장 빈번히 인용한 교부 자료들은 종교개혁이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성경의 교리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종교개혁의 진정성과 보편성을 확증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교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것을 증오와 혐의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험담으로 규탄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교리를 신기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 . . 많은 거룩한 교부들의 동의와 가장 오래된 관습에 반대되도록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 . 더우기 그들은 우리가 교부들, 즉 초대 교회의 보다 순수하던 시대의 저술가들을 반대한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부들이 자신들의 불경건을 지지하였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말입니다. 만일 논쟁이 교부들의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가장 겸손히 말한다 해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sup>24)</sup>

둘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완전한 교리를 추출하려는 시도에서 칼빈은 여러 대적들과의 신학적, 교리적 논쟁에 연루되게 되었다. 교부들은 바로 이러한 논쟁의 한 요소였다. 칼빈의 교부들에 대한 지식과 사용이 공중 앞에 확연히 드러나게 된 계기는 1536년 10월 1일에서 8일까지 로잔에서 열린 카톨릭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115. 문자적 의미, 단순성, 간략성, 명료성, 작가의 견해, 상황, 의도.  
22) W. N. Todd, *The Function of the Patristic Writings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New York: Union Theological Seminary Ph.D thesis, 1968) 149-150.  
23) *Ibid.*, 169-171.  
24) 김종흡외 3인공역, 『기독교 강요』 49-54.



과 개혁가들 사이의 논전에서였다. 이 회의에서 칼빈은 5일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장 미마(Jean Mimard)가 프로테스탄트들은 고전을 무시한다고 경멸했을 때, 행동에 나서게 된다. 그의 반박을 통해 칼빈은 자신이 초대 교부들을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임을 입증 한다(CO 9, 877-884). 그의 언급 중 한 마디는 교부 사용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경우에 도움이 되고, 상황이 주어진다면, 애써서 그들을 읽는 수고를 왜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도움을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는가?” (CO 9, 877).

셋째, 주석과 관련하여, 칼빈은 자신의 주석적 결론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칼빈이 가장 선호하는 교부인 어거스틴이 크리소스톰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칼빈은 크리소스톰을 가장 위대한 주석가로, 어거스틴을 가장 위대한 신학자(CO 9, 834-836)로 호칭한다. 이런 평가는 칼빈이 주석에 있어 신학적 성찰보다 구문 해석의 스타일과 방식을 주요하게 고려한데서 비롯된다. 칼빈은 주석 문제에 있어 어거스틴이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은 너무 알레고리하며, 때때로 구문 해석상 과도하게 플라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크리소스톰의 주해는 더 ‘자연스럽’고 ‘문자적’ 이므로 그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CO 9, 835).<sup>25)</sup>

넷째, 칼빈의 여러 저작 중 특히 주석과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순수한 역사적인 증언을 위해 교부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551년에서 1556년 사이에, 칼빈은 여러 주석들을<sup>26)</sup> 완성하는데, 이 주석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부는 어거스틴으로 세 주석에서 58회 사용된다. 두 번째는 칼빈이 신약주석에서 가장 애용하는 크리소스톰도 아니고, 구약주석에서 어거스틴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롬도 아니다. 이 주석들에서 40회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한 교부는 요세푸스이다. 그는 역사적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주석에서 주석적 기능이 변증적 기능을 능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강요』 최종판에서도 역사적 활용이 변증적 활용을 능가한다. 이는 칼빈의 최종판을 만든 목적과 부합된다. 칼빈은 이 최종판이 신학 후보생들을 위한 쉬운 입문서이자 모든 이들을 위한 신학적 요약서가 되기를 원했다(CO 2, 1-2). 이러한 이중적인 목적이 칼빈으로 하여금 역사적인 기능을 더 사용함과 동시에 이러한 독자층의 강화된 이해를 돕기 위해 변증적 요소를 절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칼빈은 독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한 사려 깊은 문학자라는 새로운 인식이<sup>27)</sup> 생겨나고 있는데, 교부들은 텍스트와 독자의 공감대를 연결하는 좋은 도구였다.<sup>28)</sup> 예를 들어 *Commentarius in quatuor reliquos libros Mosis*(1563)의 출애굽기 31장 2절 주해에서 칼빈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지성소 장식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진 고민과 절망을 보여준다. 3인칭 복수 과거형을 사용하는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던 칼빈은 갑자기 1인칭 복수 현재형인 *colligimus*를 사용함과 동시에 자신을 화자로 등장시킨다. 모세와 칼빈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칼빈의 설명을 듣는 16세기 독자들의 상황이 절묘하게 오버랩되어 간다.

25) 물론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성경의 경륜과 교리를 해석하는데는 어거스틴이 크리소스톰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임으로써, 어거스틴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지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26) 베드로 전서(1551), 요한 1서(1551), 유다서(1551), 베드로 후서(1551), 사도행전 1-13장(1552), 요한복음(1553), 사도행전 14장-28장(1554),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들의 조화(1555), 빌레몬서(1556).

27) 대표적인 것으로 부스마(William Bouwsma)의 1988년 작품인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가 있다. 그러나 부스마의 작품은 역사, 연대 그리고 칼빈 사상의 배경과 콘텍스트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의미에서 올리비에 밀러(Olivier Millet)의 1992년 *Calvin et la Dynamique de Parole: Étude de Rétorique réformée*는 칼빈의 불어 작품들의 레토릭을 다룬 탁월한 저작이다.

28) 칼빈이 탁월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엄격한 조직신학자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이미지는 신학적 논쟁만을 중심으로 칼빈을 해석할 때 발생한다. 주석이나 설교, 편지와 함께 강요와 논문을 살펴 볼 때, 칼빈은 독자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고려하는 따뜻한 가슴의 사람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도우심에 부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곤경에서 이 기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당신께서 명하신 바를 주시고, 당신이 주시려는 바를 명하소서” (CO 25, 58).

칼빈은 논리적인 설득을 시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감을 얻으려 노력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의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우리’라는 단어로 연결된다. 그리고 도움을 바라는 공통의 기도로 이끌어진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고, 동시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의 기도로 변화되어 버린다.

여섯째, 앞에서 언급한 노이저 교수의 말처럼, 오직 순수하게 신학적인 목적으로 인용된 대표적인 예들이 어거스틴 인용에서 발견된다. 칼빈의 교부사용 연구에서 어거스틴의 독특성 문제는 소논문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주제이다. 따라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이 주제는 다음의 흥미로운 질문들과 관련되어 있다. 각 질문 하나가 소논문의 주제 또는 전문적인 연구 서적 한 권의 주제로 손색이 없다. 교부자료 전체에서 어거스틴 인용이 차지하는 빈도수와 위치(loci) 기능, 각 개별 교부와 어거스틴에 대한 칼빈 자체의 평가 변화, 어거스틴을 제외한 모든 교부를 자신과 성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어거스틴만이 신학적 영향력을 주었는가? 신학적 영향은 어떤 신학적 주제에서 뚜렷하게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는가? 어거스틴의 영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동시대인 개혁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칼빈이 사용한 어거스틴 원전은 아베바흐판인가 에라스무스판인가? 칼빈의 어거스틴은 누구인가? *schola moderna*인가 *schola Augustiniana moderna*인가? 중세 어거스틴주의와의 연속성인가 르네상스와의 연속성인가? 칼빈의 어거스틴 인용에서 레토릭 사용 등등 대답되어야 할 많은 질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칼빈의 어거스틴 사용 연구는 최근 시작된 연구이며 전망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4 교부사용 연구의 도구

교부사용 연구의 도구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칼빈의 저작내에서 교부자료의 신뢰성 있는 위치(loci)가 지정되어야 한다. 스미츠는 4,119개의 어거스틴 인용문을 제시한다.<sup>29)</sup> 그러나 스미츠의 자료는 위치 지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스미츠는 어거스틴 인용을 추출하는 기준으로 *références avec citation, références sans citation, de citations sans référence* 그리고 *de passages sans citation ni références*를<sup>30)</sup> 선정했는데, 어떤 인용문이 어떤 기준에 의해 추출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뒤의 두 기준은 엄격히 말해 문헌학적으로 불확실한 기준이다. 따라서 스미츠의 자료는 가능성(possibility)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연성(probability)에서 부족하므로, 과학적인 증거자료로 제시될 수 없다.

무이는 1,763개(수도-어거스틴 포함)의 어거스틴 인용을 포함하는 3,945개의 교부 인용을 제시한다.<sup>31)</sup> 그는 *citaten of omschrijving met aanduiding van plaats van herkomst, citaten of omschrijving zonder aanduiding van plaats herkomst* 그리고 *naamsvermelding zonder meer*라는<sup>32)</sup> 세 가지 엄격한 기

29) Luchsius Smits, *Saint Augustin dans l'oeuvre de Jean Calvin*, 2 vols. (Assen: Van Gorcum, 1956-1958).

30) 인용이 있는 참조, 인용이 없는 참조, 참조가 있는 인용, 인용이나 참고가 없는 구문.

31) R. J. Mooi, *Het kerk-en dogmahistorisch element in de werken van Johannes Calvijn* (Wageningen, Netherlands: H Veenman & Zonen, 1965).



준을 사용하여 스미츠의 과도함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무이의 자료는 위치지정이 분명하지 않다. 만일 연구자가 무이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칼빈의 *Responsio contra Pighium*에서 어거스틴 인용문을 찾으려 한다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O 6권의 391페이지에는 4개의 가능성 있는 인용문(줄 9-12, 20, 37-42, 43-52)이 있다. 어느 것이 진짜 어거스틴 인용인지, 또 무엇이 유사-어거스틴(pseudo-Augustine)인지 무이의 자료를 통해서도 조금의 힌트도 얻을 수 없다.<sup>33)</sup> 따라서 과학적 조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통하여, 과학적 연구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구자들의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칼빈의 교부사용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칼빈 연구와 교부학 분야에서의 진전 또한 동시에 요구된다. 칼빈 연구에 있어 1863년에서 1900년까지 간행된 바움(G. Baum) 등의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권을 전후하여, 16세기판들과 20세기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CO의 영문번역 또한 21세기에 다시 한번 시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세기에 영국 칼빈번역학회가 번역한 주석과 소논문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20세기의 부분 작품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상당수 번역과 재번역 노력들이 『기독교 강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우리나라의 번역 작업은 더욱 진척이 느리다. 교부학의 경우 우선적으로 필립 샤프의 *NPNF(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전권의 번역이 절실하다. 개별학자들이 번역에 매진하고 있지만, 소수 학자들의 노력만으로 이처럼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관련 학자들의 공동작업 그리고 한국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이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교부학과 초대교회사 연구에 큰 공헌이 될 것이며, 칼빈이 가장 소중히 여겼으며, 종교 개혁의 방법론적인 동력이 된 초기 6세기까지 교부들의 풍부한 유산을 한국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글은 교회사랑 연구소 [cafe.daum.net/ezrakkim](http://cafe.daum.net/ezrakkim)에서 펴온글입니다)

##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32) 원전의 위치를 알려주는 참조/인용, 원전의 위치가 없는 참조/인용, 단지 이름만을 언급하는 인용.

33) 끝의 두 인용문은 어거스틴 유래가 아니라, 유사-어거스틴 텍스트인 *Hypomnesticon contra Pelagianos et caelestianos vulgo libri Hypognosticon* (post 435)가 출처이다.